

1 동정

-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지난 2월 26일 11시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이충원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조정석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대표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8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 ▶ 교수근 대한인쇄연구소 이사장은 지난 3월 18일 서울인쇄정보센터 7층 강당에서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신입이사장으로 재선임됐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2009년 사업결산과 2010년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정관을 개정할 것을 의결했다.
- ▶ 이악수 동국대RIS사업단장은 지난 3월 25일 오후 2시부터 인쇄정보센터 7층 강당에서 인쇄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새로운 인쇄산업의 미래를 창출하기 위하여 '인쇄산업 발전을 위한 제안'이란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 ▶ 아심 진 잡지협회 회장(월간 전원속의 내 집 발행인)은 최근 대한노인회 정기총회에서 중앙회장으로 선출됐다.

2 부음

- ▶ 교수근 전광인쇄정보(주) 대표이사의 모친이 지난 3월 2일 별세했다.

3 화촉

- ▶ 백승준 한진피앤씨 전무이사의 장남 종현군이 지난 3월 27일 명동성당에서 화촉을 밝혔다.
- ▶ 임남숙 월간 프린팅코리아 편집부 차장이 지난 3월 27일 강남웨딩홀에서 화촉을 밝혔다.
- ▶ 김병순 상일전산품(주) 대표이사의 장녀 예린양이 지난 3월 27일 목동 제자교회 3층에서 화촉을 밝혔다.
- ▶ 나춘호 예림당 회장의 차남 도연군이 지난 3월 26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화촉을 밝혔다.

인쇄단체 · 기관뉴스

인협, IPEX에 한국인쇄관 조성 ... 인쇄물 및 기자재 수출 활동전개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는 오는 5월 18일부터 25일까지 영국 버밍엄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의 인쇄기자재 전시회인 'IPEX2010'에 약 50평방미터 규모의 한국인쇄관을 조성하여 인쇄물 및 인쇄기자재 수출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협은 한국이앤엑스와 공동으로 동 인쇄관을 조성하며 이곳에는 찬란한 인쇄문화와 현대의 인쇄물, 인쇄기자재 카탈로그 등을 전시하는 한편, 직지 및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시연행사도 갖는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KIPES(국제인쇄산업전) 홍보도 병행한다.

인협은 여기에 전시할 인쇄홍보물 및 카탈로그를 접수하고 있는데, 전시물 참가 비용은 없으며 인협에서 홍보를 대행해 줄 계획이다.

인협의 관계자는 "IPEX 전시장에 우리나라에서 홍보관을 조성하는 것은 처음이며 이를 통해 인쇄물 수출을 촉진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인쇄기자재의 수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주고인쇄박물관, 직지 소재 책자 발간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직지)을 소재로 한 책자가 발간됐다. 청주고인쇄박물관(관장 안병무)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현직 중학교 교사 5명이 참여한 뒤 철저한 자료와 고증, 감수 등을 거쳐 A4용지 135쪽 분량의 직지를 소재로 한 '위대한 유산, 직지' 책자 350부를 발간해 송절중학교에 전달했다. 송절중학교 측은 이 책자를 재량학습으로 매주 2시간씩 학생들에게 가르칠 예정이다.

청주고인쇄박물관은 이에 따라 우선 '위대한 유산, 직지' 책자를 충청북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도내 각 학교에 배포한 뒤 빠른 시일 내에 전국의 중학교에 배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란우산공제 창업자도 가입 허용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가입 대상을 창업자, 무등록 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객 편의를 증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단행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존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없었던 창업 1년 미만 사업자도 3월 31일부터는 창업 즉시 가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영세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 무등록 소상공인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문호가 확대되어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이 강화되고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노란우산공제는 지난 2007년 9월 출범하여 지난 2009년 10월에 가입자 3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현재는 3만 6천명의 소상공인이 가입하고 있다.

강원도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해산

강원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 해산된다. 강원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은 지난달 26일 조합 사무실에서 제48회 정기총회를 열고 자금난 등을 이유로 해산기로 결정했다. 강원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은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이후 수익성을 찾지 못한 채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왔다. 조합 측은 존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정기총회를 개최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총회는 무산됐다. 조합 측은 미참석 회원들에게 의결안에 수용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이날 조합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을 폐지기로 결정했다.

서울인쇄센터, 인쇄영문편람 2010 수록 희망업체 모집

서울인쇄센터(이사장 조성석)는 공동브랜드를 이용한 중소 인쇄업체의 해외 경쟁력 강화 및 수출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인쇄업체 영문 편람'을 제작하기로 하고, 이에 편람 수록 희망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영문편람은 KOTRA 해외무역관(약 100개)에 발송되며 해외 바이어 인쇄업체 추천 요청시 우선적으로 추천된다. 또한 해외 바이어에게 홍보 책자로 배부된다. 모집기간은 5월 31일까지이며 서울인쇄센터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이메일(spc3081@naver.com)로 발송하면 된다.

인쇄단지조성추진위원회 현판식 개최



인쇄단지조성추진위원회(위원장 강동환)는 지난 3월 18일 서울 을지로3가에 위치한 비즈센터(719호)에서 강동환 인쇄단지 조성추진위원장, 홍우동 인쇄협회장, 이충원 인쇄연합회장 등 단체장과 추진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다.

강동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현판식을 시작으로 인쇄단지 조성에 관한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 할려고 한다. 시작은 미미하지만 인쇄인들이 하나로 결집해서 인쇄업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어 축사에서 홍우동 인쇄협회장은 "인쇄단지조성사업은 강동환 위원장과 인쇄를 사랑하는 위원회 관계자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인쇄단지가 조성되면 인쇄산업이 국가에 큰 이바지를 하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쇄단지조성추진위원회는 최근 인쇄단지 조성을 위해 미국의 전문투자회사 Win Holding사로부터 5억 달러의 인쇄단지조성자금을 유치하고, 경기 일원에 인쇄산업을 집적화·첨단화할 수 있는 인쇄단지 부지(330만 5785 평방미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에 따르면 인쇄단지가 조성되면 인쇄관련 업종이 몰려 인쇄산업 메카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화촉

- ▶ 전익성 다이너폰스크린코리아 대표이사의 장남 태웅 군이 지난 3월 20일 여의도 현대컨벤션웨딩홀 13층에서 화촉을 밝혔다.
- ▶ 이정환 한신정판사 사장의 장남 재필 군이 M팰리스 웨딩2층 컨벤션홀에서 지난 3월 20일 화촉을 밝혔다.
- ▶ 박명용 신광프린테크 대표의 장남 준후 군이 지난 2월 27일 OCMM웨딩홀 1층 코스모홀에서 화촉을 밝혔다.
- ▶ 신점화 (주)정문기업 대표이사의 삼녀 신원 양이 지난 2월 21일 S컨벤션 8층에서 화촉을 밝혔다.

4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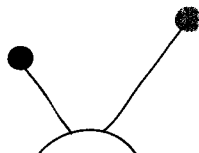
- ▶ 아미고디자인(대표 이순옥)은 최근 사업장을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29-10으로 이전했다.
- ▶ (주)한강문화(대표이사 장용섭)는 최근 사업장을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8-10으로 이전했다.

5 변경

- ▶ (주)비커뮤니케이션즈의 대표이사에 최근 권영욱 씨가 취임했다.
- ▶ (주)반프로의 대표이사에 최근 변희순 씨가 취임했다.

6 개업

- ▶ 방희영 시온에드컴제책사 대표는 지난 3월 15일 서울 중구 초동 42번지 아시아미디아센터 B206호에서 개업(확장)식을 가졌다.



이춘화 사장 영등포구 상공회 회장 재선임



서울상공회의소 영등포구상공회(회장 이춘화·신일기획문화(주)대표이사)는 지난 3월 9일 오후 5시부터 문화웨딩홀에서 2010년 정기총회 및 제4대 회장 취임식을 개최하였다. 200여 회원사가 참여하여 성황리에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금년으로 임기 만료인 제3대 이춘화 회장이 임기 3년의 제4대 회장에 만장일치로 재추대되었다.

이어서 개최된 기념행사에는 김형수 영등포구청장, 류경희 노동부남부지청장, 유건철 영등포소방서장 등 관내 기관장과 양창호 시의원과 구의회 박성호 운영위원장, 심용진 행정위원장, 최미경 사회건설위원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이춘화 회장은 취임사에서 “우리 영등포구상공회를 구심점으로 관내의 중소기업인들이 합심하고 지혜를 모으면 지역 경제에 활기가 넘칠 것으로 전제하면서, 앞으로 임기동안 우리 상공인들이 지역 사회발전에 동참을 유도함과 아울러 사라져 가는 영등포구의 기업가정신을 되살리는데 진력하겠다” 포부를 밝혔다.

이춘화 회장은 서울상공의원과 서울경제의원을 겸임하며 영등포국제교류협회 회장도 맡아 사회봉사에 나서게 됨으로써 인쇄인으로서 인쇄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신문접근성 제고해 인쇄미디어산업 활성화해야”

청소년 및 소외계층의 신문관심 제고와 인쇄미디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허원제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문 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허원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

관은 청소년, 소외계층의 신문읽기와 신문접근성 제고 등 신문 읽기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국고 또는 언론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지원 또는 보조를 받는 신문에는 지역신문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신문읽기 진흥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응하도록 명시했다.

허 의원은 이와 관련해 신문은 시사정보의 제공과 함께 공공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습득할 수 있는 매체로서,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공동체 의식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나, 최근 디지털 매체의 발달로 신문 등 인쇄매체의 활용이 크게 감소하고 있고, 인터넷 사용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청소년들이 인터넷의 단편적인 정보, 확인되지 않은 사실, 비속어 등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쇄 · 프리프레스뉴스

동양인크, 제17회 화남국제인쇄전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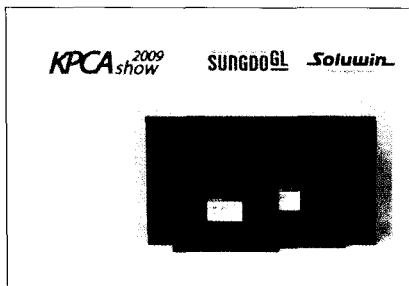


동양인크(주)(대표이사 최대광)는 지난 3월 9일부터 11일까지 중국 광저우에서 개최된 제17회 화남국제인쇄전(South China International Exhibition on Printing Industry)에 참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전시회는 포장기계, 라벨기, 프리프레스 및 지함, 스크린인쇄, 후렉소 및 그라비아인쇄의 품목 등이 출품되었으며 주요 참가국으로 한국, 인도, 스페인 등을 포함해

인쇄관련 업체 250여개 업체들이 참가해 자신들의 제품을 전시하였으며 3만 여명의 관람객이 참관했다.

동양잉크는 중국현지법인인 제남황관잉크와 참가했으며 오프셋잉크 COMAX, MIDAS와 UV잉크인 New Hi-CURE를 출품했다. 동양잉크측은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현지법인인 제남황관잉크의 제품을 전시, 전시회를 참관한 전세계의 인쇄업계 관계자들에게 동양잉크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성도GL/성도솔루션, KPCA show 2010 참가



(주)성도GL/(주)성도솔루션(대표이사 김상래)은 오는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되는 KPCAshow 2010

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KPCAshow 2010은 국내에서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전자회로 및 실장관련 전문 전시회로서 PCB 산업과 SMT 산업의 종사자들에게 선진 기술 소개 및 기술 이전의 기회와 다양한 정보 제공 등을 제공하는 전시회이다.

성도GL과 성도솔루션은 이번 전시 행사를 통해 최신 기술의 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며 고객들에게 제품의 정보, 시연 뿐만 아니라 감동을 줄 수 있는 전시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고객들의 많은 성원을 당부했다. 참가부스는 킨텍스 5홀 Booth No. D-31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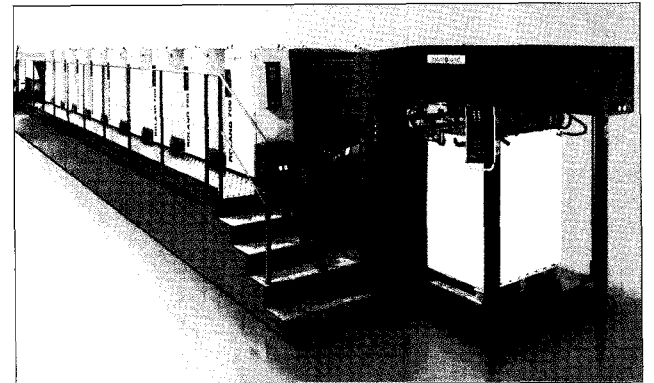
(주)지엠피, IPEX 2010 전시회 참가

(주)지엠피(대표이사 김양평)는 오는 5월 18일부터 25일까지 영국 버밍엄 NEC(National Exhibition Center)에서 열리는 IPEX2010전시회에 참가해 최신 제품을 선보인다고 발표했다.

지엠피는 홀 20, 스탠드 B610에 참가하며 주요 출품 제품은 파우치 라미네이터인 LAMEX-325, IMAGE II-33HR을 비롯, Prographics Large Format Roll 라미네이터인 GRAPHICMASTER III-1600, Digital On-Demand 싱글 사이드 라미네이터인 PROTOPIC PLUS-520B, PROTOPIC

PLUS-520B DUAL과 디지털 UV코터인 유로코터-플러스 3752 UV(프리미엄형) 등이다.

만로랜드, IPEX 2010 준비 한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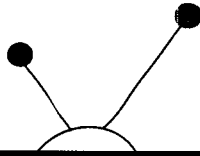
만로랜드는 오는 5월 18일부터 25일까지 영국의 버밍엄에서 개최되는 IPEX2010전시회에 '개척정신이 반영된 부가가치 인쇄(Value Added Printing)'의 가치 아래 매업 및 운전 인쇄기와 관련한 다양한 상품들과 서비스들을 전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로랜드는 '자동화', '제품의 다양성', '효율적인 생산라인', '네트워크', '서비스 및 소모품' 등의 구분되며, 한정된 공간과 시간에 보다 많은 것을 방문객에게 보여주고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동시에 독일 오펜바흐의 만로랜드 본사에 고객을 초청하여 5월 17일부터 26일까지 테크놀로지 포럼을 개최하여 보다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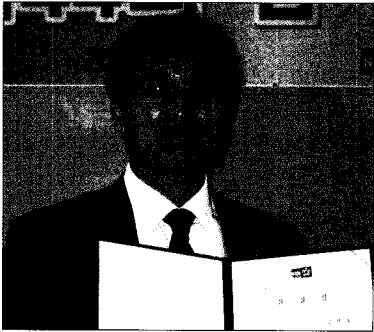
만로랜드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인쇄산업이 나아가 할 방향을 정확히 제시하면서 지난 드루파 2008에서 현대적이고 감각적인 부스 디자인으로 많은 찬사를 받은 데 이어 이번 IPEX 2010에서도 최고의 인쇄기를 효과적으로 선보일 수 있는 부스 디자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만로랜드는 IPEX 2010을 방문할 예정인 한국 고객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인쇄산업이 다시 급격한 방향 전환을 해야 하는 시기라는 것을 인식하고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지속적인 생산 효율성을 기대하고 있다면 만로랜드 부스를 방문하여 만로랜드의 부가가치 인쇄 전략을 확인하고 최신 기술을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만로랜드의 출전부스는 Hall 17이다.



성도GL/성도솔루원, 모범 납세자 표창 수상



(주)성도GL/(주)솔루원(대표이사 김상래)은 지난 3월 3일 서울 중부세무서에서 수여하는 모범 납세자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회사측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평소 성실하게 세

금을 납부하고, 법에 따른 규정을 잘 이행하는 회사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2009년도에 이어 연속으로 수상을 하는 영예를 안아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전했다. 성도GL/성도솔루원은 앞으로도 고객들을 위해 투명한 경영을 펼치고 최고의 가치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도GL/성도솔루원, 전 직원 경영 전략 교육



(주)성도GL/(주)성도솔루원(대표이사 김상래)은 지난 3월 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경영 전략에 관한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경영 전략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실 사례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되었으며 교육을 받으면서 직원들의 통합적인 사고 증진으로 고객들에게 더욱 발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의의를 두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성도GL/성도솔루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토론을 통하여 직원 개개인과 회사의 발전 및 고객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결과를 이루어 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캐논코리아, 퇴직자 대상 창업설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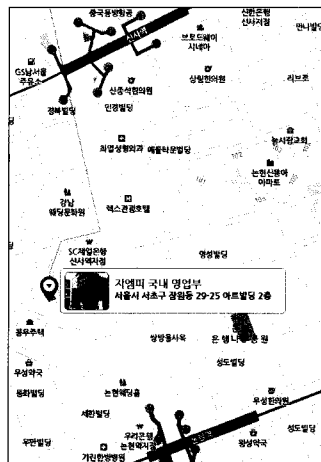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대표 김천주)은 지난 3월 31일까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내 출력센터(POD센터)설명회 참가를 받았다. 4월 중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는 최근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고 있지만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창업아이템이 적고 처음 사업을 하는 창업자가 안정화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하여 캐논코리아에서 마련한 것으로 디지털 복합기와 입출력시스템을 한데 묶어 기업 내에서 출력업무를 도맡아 할 수 있는 전문출력센터에 대한 정보와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예비창업자에게 설명하는 자리이다.

캐논코리아 관계자는 “앞으로 규모가 큰 기업체에서는 보안과 업무효율성을 이유로 전문출력센터의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예비창업자들에게는 경쟁력 있는 아이템을 발굴하는 기회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엠피, 국내영업부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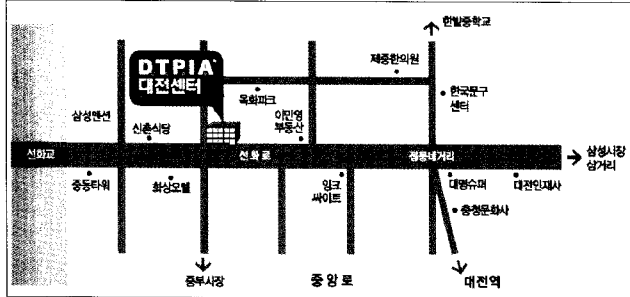


지엠피(대표이사 김양평)는 지난 3월부터 국내 영업부 사무실을 이전했다. 이전된 사무실은 지엠피프린팅FOD(지엠피 강남전시장)인근의 한국아쿠르트 뒤편에 위치하고 있는 아트빌딩 2층이다.

주소는 서초구 잠원동 29-25 아트빌딩 2층이며 전화번호는 02-319-3333

(대표) · 02-3444-3800, 팩스번호는 02-3444-3830다.

성진에드컴, DTPIA 대전센터 오픈



(주)성진에드컴(대표이사 이정희)은 지난 3월 8일부터 대전시 인쇄거리내에 위치한 실사나라 2층 101호에 'DTPIA 대전센터'를 개설하고 방문접수 및 출고 업무를 시작했다. DTPIA대전센터는 대전역앞 인쇄거리를 중심으로 동구-삼성동, 중동, 정동, 중앙동지역에 있는 고객들을 주 대상으로 방문접수, 출고, 통신접수, 원고작업 등을 진행하게 된다. 방문접수: (평일) 오전9시~오후6시 (주말)오전9시~오후3시, 방문출고: (평일)오전9시~오후7시 (주말)오전9시~오후5시이며 매일 1회 직영배송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성진에드컴 관계자는 "대전지역 고객들에게 더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DTPIA 대전직영센터를 개설, 운영하게 되었다며 고객분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연락처는(042)634-1151~2이다.

장은테크, 코닥 프리프레스부문 공식 대리점 계약



한국코닥(대표 루이스레베)은 지난 3월 16일 서울 상암동 본사에서 (주)장은테크와 프리프레스 부문 공식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장은테크는 그래픽아트 분야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는 JETRIP 과 20년 역사의 한컴서체를 제조 공급해왔으며 코닥과는 2002년부터 코닥의 미디어를 담당하는 총판역

할을 해왔고 이번 프리프레스부문 대리점 계약 체결로서 사업분야를 대폭 확대하게 되었다. 이번 계약을 통해서 장은테크는 코닥의 Magnus 800 플레이트세터, Trendsetter 800III 플레이트세터, Thermoflex 등의 CTP장비 및 워크플로와 CTP 판재 및 현상약품 등 각종 소모품까지 모두 취급하게 됐다. 장은테크 송동근 대표는 코닥과의 대리점 계약 체결로 2010년도 사업성장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코닥 사업부를 별도로 신설해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팩2011 한국관 사업설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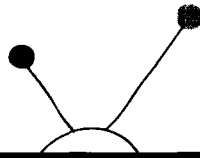
한국포장기계협회(회장 이일해)는 지난 2월 26일 서울 삼성동 KOTRA 세미나실에서 인터팩2011 한국관 출품 업체 업무협의회 겸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인터팩2011 한국관 사업은 한국포장기계협회와 코트라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협회와 코트라의 체계적인 업무 분담으로 추진되고 있다. 매 3년마다 열리는 세계 최대의 포장 전문 전시회인 인터팩은 2011년 5월 12일부터 18일까지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인터팩2011 한국관에는 하나(주), 한국뉴매틱(주), 미래팩, (주)선진에스엠, (주)에이스팩, (주)에이치피엠글로벌, 산호기계, 등 14개사에서 198㎡ 규모로 참가할 예정이며 약 20여 업체가 개별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HP, HP 사이텍스 어워드 개최

한국HP(대표 스티븐 길)는 지난 3월 12일 프린터 업체 최초로 업체 주관으로 옥외광고 및 간판업체의 디지털 프린트 부문을 시상하는 '2010 아시아 태평양 및 일본지역 HP 디지털 프린트 어워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래픽 아트 업계에서 HP의 글로벌 디지털 출력 전문 기술과 리더십을 확고히 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HP 사이텍스대형 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한 대형 출력물 중 아시아 태평양 및 일본 지역 간판 업계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큰 공헌을 끼친 출력 업체들을 선정하여 시상하게 된다. 현재 출품작을 접수 중이며 제출 마감일은 4월 30일이다. 수상 결과는 5월 31일에 통보된다.



한국HP, 남아공으로 응원가자 이벤트



한국HP(대표 스티븐 길)는 월드컵 시즌을 맞아 온라인상으로 나만의 축구팀을 만들고 미션 수행을 통해 우수한 최종 한 팀

에게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남아공 원정 응원을 지원하는 '한국 HP, 나만의 축구팀 만들고 남아공 응원가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4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프로모션은 한국 HP 오피스젯 프로 웹사이트 (www.hp.co.kr/officejetpro)에서 4명의 팀원을 모아 5명으로 구성된 나만의 축구팀을 만든 뒤, HP오피스젯 관련 미션을 수행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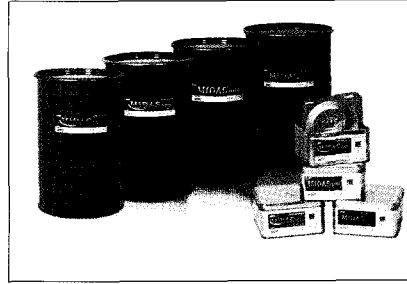
성진에드컴, 충무로서 POD인쇄 전시 및 이벤트



(주)성진에드컴(대표이사 이정희)은 지난 3월 4일과 5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 충무로 명보아트홀 광장에서 디지털 인쇄 홍보 이벤트 및 전시를 개최했다. 성진에드컴은 이날 신규거래처 등록을 한 고객에게는 업체별로 5000원 상당의 인쇄상품권을 증정하였으며 많은 고객의 호응으로 성황리에 디지털인쇄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성진에드컴은 오프셋 인쇄제작 전국유통에 이어 HP 인디고 7000 디지털 인쇄기를 도입해 협력사를 포함할 경우, 총 4대의 디지털 인쇄기로 전국 고객을 위해 디지털 책자(결러, 흑백) 인쇄와 낱장 인쇄, 단행본 최저가 출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이번 홍보 이벤트 및 전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동양잉크, 친환경 잉크 'MIDAS LTD' 출시



(주)동양잉크(대표이사 최대광)는 친환경 저온건조 잉크인 마이다스(MIDAS LTD)를 출시했다.

국내 인쇄잉크의 선두기업으로 60여년에 걸쳐 쌓아온 잉크제조 노하우와 독창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근 고속인쇄기의 출현에 따른 인쇄속도의 고속화 대응 및 인쇄비용의 절감을 위해 H/S 건조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 국가 산업에서 이슈화가 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추어 인쇄시 배출되는 유해탄소의 양을 획기적으로 절감한 제품이다.

MIDAS(LTD)는 대두유(SOYBEEN OIL BASED INKS) 적용, 저탄소 배출, 잉크 내 방향족 성분 1% 이하 함유를 실현하여 친환경성을 향상 시켰을 뿐만 아니라 빠른 건조시간과 SET, 저온건조(Low Temperature Dry)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홈페이지_ www.dongyangink.com

오프셋방식 태양전지용 전극인쇄 장비 국산화

IT소재 전문기업 에스에스씨피(대표 오정현)는 오프셋 인쇄방식 기술을 적용해 태양전지용 웨이퍼에 미세한 두께로 전극을 입힐 수 있는 장비를 국산화, 공급에 나섰다. 이 방식은 현재 쓰이고 있는 등사방식의 일종인 스크린 인쇄 방식(80 μ m이하·마이크로미터는 100만분의 1m)에서 구현이 어려운 50 μ m 이하의 미세한 두께로 인쇄가 가능해 태양전지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극 재료인 실버페이스트의 양을 줄여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번 장비 개발로 에스에스씨피는 태양전지용 실버페이스트, 실리콘 블랭킷 등 소재뿐만 아니라 관련 부품과 장비에 이르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태양전지용 전극 재료인 실버페이스트 시장은 기존 스크린 인쇄방식을 쓰는 미국 기업들이 과점 형태를 보이고 있다. 관련 인쇄장비도 미국 유럽 업체가 장악하고 있어 그동안 국산화가 요구돼 왔다.

한국HP, HP정품 잉크 웨미리마트에서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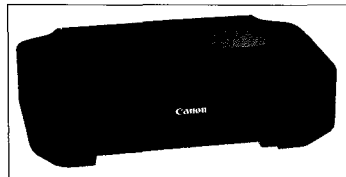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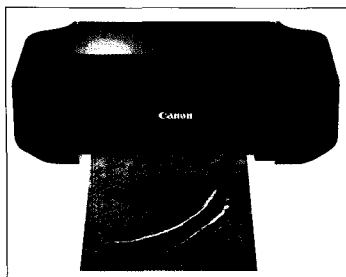
한국HP(대표 스티븐 길)는 지난 3월 11일 비정품잉크 대비 2배 이상 출력 가능한 HP 정품잉크 및 일부 토너 제품을 서울 전 지역

웨미리마트에서 판매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HP잉크 제품은 웨미리마트 (서울지역 약 1천1백여 개점)에서 구입 가능하며, 고객들은 어느 지역에서나 보다 편리하고 쉽게 HP 정품 잉크를 구입할 수 있다. 구입을 원하는 고객들은 가까운 웨미리마트 매장을 방문 또는 온라인 주문 사이트(www.imegasonic.com)를 통해 필요한 제품을 주문할 수 있다. 주문한 제품은 3시간 이내에 고객이 수령을 원하는 웨미리마트 매장에 배송되며, 고객들은 원하는 매장에서 제품을 받으면 된다.

한국 HP 이미징 프린팅 그룹 전산용품사업부 김성희 이사는 “HP잉크 판매처 확대는 소비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품질 좋은 HP 정품잉크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HP 정품잉크 사용 캠페인을 통해 HP 정품잉크의 신뢰성 및 우수성도 널리 알리고 추가 혜택까지 제공받는 알찬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캐논코리아, 실속형 포토 프린터 2종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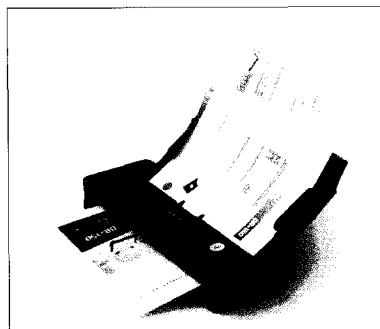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대표 김천주)은 포토 프린터인 iP2770와 iP2772 2종을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은 2pl(피코리터: 1조분의 1)의 잉크방울과 4800dpi해상도로 고화질 사진출력은 물론 이미지와 텍스트가 포함된 인터넷의 정보를 간단하고 경제적으로 출력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진 사이즈의 출력은 장당 55초, A4사이즈의 문서출력의 경우, 컬러 4.8ipm, 흑백 7ipm으로 출력할 수 있으며 사진출력용 염료잉크와 문서출력용 안료잉크를 함께 탑재한 하이브리드 잉크시스템이다. 인터넷 콘텐츠 출력과 편집이 쉽도록 Easy-WebPrint EX가 무료로 제공되며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인터넷 페이지에서 원하는 부분만 골라 하나로 합치고 또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 맞춤형 출력이 가능하다. 캐논코리아의 관계자는 “평소에 인터넷 콘텐츠 출력이 많은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인터넷 페이지를 열어놓고 무심코 인쇄버튼을 눌렀다가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여러 장 출력한 경험이 많을 텐데,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필요한 부분만 출력할 수 있어 용지와 잉크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고 편의성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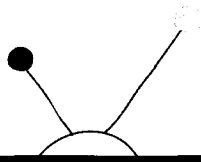
캐논코리아, 핸디 스캐너 P-150 출시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대표 김천주)은 서류가방에 넣고 다니며 별도 전원장치 없이 간편하게 스캔할 수 있는 핸디 스캐너 P-150을 출시했다. 노트북의 절반

에 불과한 소형에 약 1Kg의 무게로 작은 공간에서 스캔하거나 간편하게 휴대하며 사용할 수 있는 P-150은 별도의 전원장치 없이 USB케이블로 연결해 1분에 컬러10매, 흑백12매의 속도(A4, 150dpi 기준)로 스캔할 수 있다. 추가로 USB케이블 1개 또는 전원어댑터를 연결하면 컬러 12매, 흑백 15매로 스캔속도를 높일 수 있다. 최대 A4사이즈까지 스캔할 수 있고 메모지나 명함, 사진 등의 다양한 사이즈에도 대응한다. 스캐너 소프트웨어가 내장되어 있어 PC가 바뀔 때마다 드라이버를 새로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다.

캐논코리아 관계자는 “외근이 잦은 영업직이나 금융 보험업 종사자는 P-150으로 간편하게 문서를 스캔하여 실시간으로 처리하면 고객 정보 유출 방지는 물론 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판뉴스

출판단체,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

대한출판문화협회를 비롯한 출판·서점계 9개 단체는 지난 2월 24일 협회 4층 강당에서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출판·서점계 단체장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도서정가제의 근간을 유지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긴급 기자회견은 지난 2월 18일에 개최된 규제개혁위원회가 문화부가 입법예고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신간(18개월) 할인율을 직접 가격 할인과 마일리지, 할인권 등 경품을 포함해 10%로 제한)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백석기 출협 회장은 출판·서점계 단체장이 공동으로 채택한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이어 기자들의 자유질의 시간을 통해 도서정가제 유지의 필요성과 현재 도서 유통의 문제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내용에 대한 출판계의 의견 등을 설명했다. 현재 출협을 비롯한 9개 출판·서점계 단체는 도서정가제 유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며, 이날 성명서 발표에 이어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대정부 청원, 행정소송 등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출협, 2010 서울국제도서전 안내 브로슈어 배포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백석기)는 지난 2월 25일 '2010년 서울국제도서전'의 특징 및 참가신청 방법 등을 담은 안내 브로슈어를 회원사를 비롯한 출판사 3천여 사에 배포했다. 올해 또한 작년 이어 얼리버드제도가 시행된다. 한편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서울국제도서전의 주빈국은 프랑스이며, 오는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코엑스 A홀과 B홀에서 개최된다.

출판협회, 볼로냐아동도서전 참가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백석기)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지난 3월 23일부터 26일까지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개최되는 볼로냐아동도서전(Bologna Children's Book Fair)에 한국관을 설치하고, 국내 아동도서의 저작권 수출활동을 지원했

다. 올해는 30개 국내 출판사가 한국관에 참여해 주빈국으로 참가했던 작년(35개사)과 거의 비슷한 참여율을 보였다.

한국관 참가사 전시이외에, 경인년 호랑이해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아동도서의 소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호랑이를 주제로 일러스트레이션이 뛰어난 그림책과 환경을 소재로 한 그림책을 전시해 한국관을 방문하는 해외출판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편, '볼로냐라가찌상'과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 선정에서 텍스트 구성의 창작성과 예술성을 높이 평가 받아 석굴암(Temple Built of Stone, Seokguram, 김미혜 글, 최미란 그림, 웅진씽크빅)이 '볼로냐라가찌상' 픽션 부분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한국작가 6명이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에 선정되었다. 그 외 올해 이탈리아 아동문학작가 잔니 로다리의 서거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특별전시 '그래머 오브 피겨즈(The Grammar of Figures)'에도 한국작가 1명이 선정되었다.

전자책콘텐츠 표준화 위한 포럼 발족

전자책 콘텐츠 표준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표준화 포럼이 발족한다.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정부와 출판, 언론, 유통, 단말기 등 관련업계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전자출판물 표준화 포럼(가칭)'을 구성하고 곧 발기인대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자출판물 표준화 포럼에는 정부 측에서 기술표준원을 비롯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교육과학기술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또 업계 쪽에서는 전자출판협회, 교보문고, 인터파크, 삼성전자, 한국언론재단 등 20여개 전자책 콘텐츠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의 1차적 목표는 현재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 전자책 포맷에 대한 표준기술을 개발, 표준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또 이를 지원하기 위한 컨버팅 툴킷도 개발할 예정이다. 포럼이 지정할 표준 콘텐츠 포맷은 인터넷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현재 국내 유력업체들이 채택한 '이퍼브(EPUB)'가 유력하다고 표준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포럼은 이어 중장기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할 수 있는 인증제를 마련해 포럼이 마련한 표준포맷이 자연스럽게 국내 표준으로 자리잡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5년 정도까지는 정부 주

도로 운영한 후 표준이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 업계 자율로 돌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표준화 포럼은 다음 달 발기인 대회 후 20여개 전자책 관련 당사자들이 모이는 워크숍을 5월과 10월 개최한 후, 11월 까지 '국가·국제 표준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지뉴스

무림, 제25회 우수제지인상 수상



무림은 지난 2월 25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지연합회 정기총회 중 우수제지인상 시상식에서 5명의 우수제지인을 배출했다고 발표했다. 이 날 신규거래처 발굴과 ERP 안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최용철 차장(무림페이퍼 인쇄용지영업팀)과 원가절감과 개선활동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힘쓴 김재섭 과장(무림SP 대구공장 전기제어파트)을 포함한 총 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제지공업연합회가 주관하는 우수제지인상은 제지업계와 회사발전에 이바지한 근속년수 5년 이상의 제지인을 대상으로 선정된다.

무림, 본격적인 브랜드 광고 돌입



무림(대표 김인중)은 지난 3월 10일부터 서울 신사동 본사 옥상의 LED 전광판을 통해 본격적으로 일관화공장 알리기에 나섰다.

이번 광고는 '생고기 같은 종이'라는 카피를 통해 냉동과 해리를 반복하지 않은 생고기처럼 우수한 일관화공장 제품의 장점을 홍보하고 있다. 무림의 관계자는 강남-북을 연결하는 한남대교와 차량통행이 많은 올림픽도로 등에서도 쉽게 볼 수 있어 무림의 고객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일관화공장의 건설과 무림의 브랜드 알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무림은 하반기부터 다른 광고매체를 통해서도 무림의 브랜드 알리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해외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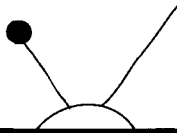
KBA, 패키징 프린터 오픈하우스



KBA는 지난 3월 11일 독일 라데블(Radebeul)에서 대형 포맷 및 패키징 프린터를 타겟으로 하는 오픈하우스 열었다고 밝혔다. 유럽 10개 국가들과 미국을 대표하는 약 160여 업체들이 인쇄전(Kodak), 인쇄(KBA) 및 인쇄후 장비(Bobst)와 관련하여 초대형 포맷(XXLplus)과 대조되는 대형 포맷(XL) 생산의 기술적 및 경제적 의미를 토론했다. 특히 이 행사에서 KBA는 더욱 자동화된 라피다185(130×185cm 포맷)를 선보였다.

라피다185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무역 및 미디어 그룹 알 베이안(Al Bayan)이 제작한 것으로, 7개의 인쇄장치, 2개의 코터 그리고 3개의 건조타워로 구성되었다. 길이가 33m, 무게가 700톤인 이 거대한 인쇄기는 일반보드와 골판 보드에 모두 인쇄할 수 있는 매우 인상적이고 잠재적인 능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생산성과 수익성에서 라피다185는 라피다205(151×205cm), 라피다142코터 인쇄기(패키징 프린터로 선택된 전형적인 구성인 102×142cm 포맷의 6컬러)와 성능이 비슷하다.



하이델베르크, IPEX에 새로운 솔루션 소개



하이델베르크는 오는 5월 18일부터 25일까지 영국 버밍엄에서 개최되는 올해 IPEX 전시회에서 제품과 서비스 포트폴리오에서 최신 개발 제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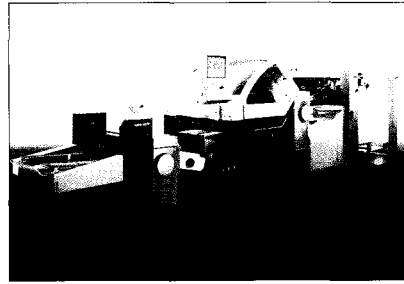
홀 8에 위치할 하이델베르크는 인쇄사의 간결하고 환경 친화적인 생산과 같은 시장의 현 트렌드에 중점을 둔 전시를 예정이다.

하이델베르크의 CEO 베른하르트 슈라이어씨는 “우리의 목표는 고객이 앞으로의 도전에 잘 응하고 변화하는 환경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성공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며 “하이델베르크에게 IPEX는 경향의 지표가 되며 또한 2010년 인쇄 업계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부 긍정적 상황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미래에 경제적으로 큰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분야에 투자하는 회사들은 그러나 미래를 위해 좋은 위치를 선점하게 될 것”이고 “하이델베르크는 전시회를 통해 더 많은 혁신으로 시장을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고객들의 최신 기술과 종합적 서비스 제품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바라는 기대를 IPEX에서 확실히 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성능(HEI Performance)과 고부가가치(HEI Value)를 핵심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하이델베르크는 전시회에서 어떻게 미디어 서비스 업체들, 인쇄 회사, 후가공 전문 회사들이 현 시장 트렌드에 대응하고 자신의 제품을 그에 따라 맞출 것인지에 중점을 두고 현장 데모를 할 예정이며 매업 오프셋 인쇄의 전부가 가치 창출 공정에서 비즈니스와 작업을 어떻게 최적화하면서도 환경 영향을 최소화 할 것인지를 보여줄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현장 데모를 통해 전시회 고객들은 단통 고품질 인쇄물로

서 경제적 성공을 어떻게 거두며 창조적 인쇄물로 경쟁에서 두드러지고 인터넷을 비즈니스 전략에 어떻게 통합시킬 지를 확인하는 전시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델, IPEX 2010 겨냥 스탈폴더 KH 66 선포



하이델베르크는 자동 가로 접지 유닛이 장착된 새로운 스탈폴더 KH 66 콤비 폴더를 IPEX 전시회에 선보인다.

완전 자동화된

콤비 폴더 시리즈가 66cm 작업 폭의 모델로도 제공되게 되며 63×88 cm 용지 규격의 일반적인 16페이지 시그니처를 처리할 수 있다. 기술적 구성은 스탈폴더 KH 82와 동일하다.

KH 66는 가로 접지 가동을 하더라도 분당 230m의 최고 속도를 낼 수 있으며 최고 속도가 시간 당 3만 사이클까지 향상됐다. 선택하는 자동화 기능에 따라 가로 접지 유닛의 설정 시간은 수동 KH 66 모델에 비교하여 80%까지 절감된다.

새로운 KH 66 역시 웹 기반 리모트 서비스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사용하여 네트워크될 수 있어 기계 가동 시간을 극대화하며 또한 프리넥 포스트프레스 매니저(Prinect Postpress Manager)는 기계가 투명한 생산 공정을 위해 워크플로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한다.

새 콤비 폴더는 새로운 서보 구동 접지 칼로서 최고 속도를 시간 당 3만 사이클까지 증가시키며 서브 드라이브는 칼 속도가 메인 드라이브와 독립적으로 조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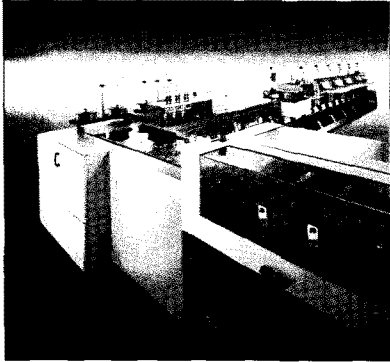
또한 칼의 높이와 기울기 등과 같은 모든 칼 설정을 반복 작업을 위해 저장되고 재활용될 수 있다. KH66은 구동 개념에 특별한 중요성을 두고 있다.

조정 요소와 시각화 기능은 3면에서 보고 작동할 수 있으며 가로-접지 유닛에 있는 기울어지는 터치스크린 콘트롤 콘솔로 가능하다. 작업량은 그래픽과 사용자 친화적인 조그 휠로 지원되는 직관적 터치스크린 구동으로 경감된다. 손지, 설정 작업과 종이 막힘으로 인한 중지 등은 큰 비용 요소이며 공압적으로 올려지는 시트 스탈은 최고 속도에서도 잘못 접지된 용지를 제거

하여 가로-접지 유닛에서 종이 막힘을 예방한다.

수 있다고 밝혔다.

하이델베르크, 속도 높인 스티치마스터 ST 450



스티치마스터 ST 450은 IPEX 2010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하이델베르크의 제품군의 하나이다.

수직 및 수평형 급지부와 자동 적재를 위한 새로운 스트림피더(Streamfeeder)

는 새롭게 개발되거나 개선된 것이다. 높이 조절이 가능한 jogging table을 추가, 기계의 작업편의성을 더욱 향상시켰으며 테이블의 작업 높이는 필요에 따라 조절될 수 있어 작업자의 키에 관계 없이 더욱 편안한 작업을 지원한다.

급지부의 기능과 디자인도 크게 개선됐다. 급지부에서 용지의 이송이 더욱 신속해졌으며 정전기를 제거해야 하는 재생 용지와 같이 까다로운 용지에 유용하다. 또한 방금 인쇄된 용지와 같이 민감한 용지를 품질을 유지하며 빠르고 쉽게 처리할 수 있다. 새 급지부에서 석션 양은 밸브를 통해 자동으로 조절되며 용지가 중철물에 흡입되는 순간이 기계 속도에 맞춰진다.

새 급지부는 필요한 압축 공기의 양이 적어 절감 효과가 크다. 압축 공기의 소비가 10%까지 줄어들며 압축 공기 공급을 축소, 공급 공급의 전력 소모를 줄이는 사양으로 에너지 균형을 향상시킨다.

새 스트림피더(Streamfeeder)는 적재 성능이 150%까지 향상됐다. 스티치마스터 ST 450 중철기의 수평 피더에 자동 적재를 위해 자체 스트림피더를 개발했다. 이 제품은 2011년 시장에 판매될 예정이다. 하이델베르크의 스티치마스터 ST 450 중철기는 높은 수준의 자동화, 유연성과 생산성으로 특정 제품에 잘 적응, 다양한 제품을 처리할 수 있다. 이 유연성을 바탕으로 시간당 1만4천권의 속도로 85×128mm에서 320×480mm까지의 용지 규격과 최대 중철 두께 12mm까지 처리한다. 하이델베르크는 스티치마스터 ST 450은 JDF 호환의 컨트롤 시스템을 통해 하이델베르크의 프리빅 워크플로에 완벽하게 통합될

2011년 미국 그래픽박람회 올랜도서 개최

플로리다 인쇄협회는 내년에 처음으로 올랜도에서 Graphics of the Americas (GOA) 박람회와 회의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 쇼는 오렌지 군(郡) 컨벤션 센터에서 2011년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이 박람회에서는 300개 이상의 전시업체가 참가하여 최신 산업 제품과 기술을 선보인다. 미국그래픽박람회는 북미와 남미 그리고 카리브 해에 걸쳐 전통적 디지털 인쇄와 출판업을 위한 손꼽히는 무역 쇼와 교육회의가 되었으며, 2011년 세계최고 목적지 중의 하나인 Orlando에서 더 많은 관계자들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George Ryan(GOA) 회장은 “설레는 새 장소인 올랜도는 라틴 아메리카의 기존 참여자와 함께 미국에서 훨씬 더 많은 참석자를 유치할 것”이라며 “올랜도는 이제 회의와 무역 쇼를 위한 최고의 장소 중 하나로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VMware, 시간·비용줄이는 ThinApp 4.5 출시

가상화 솔루션 부문 전문기업인 VMware(대표 이진규)는 지난 3월 18일 ThinApp 4.5 애플리케이션 가상화 솔루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ThinApp 4.5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을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7과 같은 새로운 윈도우 운영 시스템으로 빠르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운영 환경의 충돌을 제거해 애플리케이션의 투자 수명 연장이 가능하다.

조슬린 골드파인(Jocelyn Goldfein) VMware 데스크톱 사업부 부사장은 “고객들은 경쟁력을 갖고 비즈니스를 전개하기 위한 운영시스템을 사용하려면 오래된 PC 인프라스트럭처를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만 비즈니스 운영을 방해하지 않고 수십 년 된 애플리케이션의 테스트, 코딩, 마이그레이션 등을 구현하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들고 힘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ThinApp을 통한 애플리케이션 가상화는 기업들이 가진 이런 문제점들을 도와주고 효율적인 비용으로 빠르게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고 말했다.